■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도내 447개 기업 '임신-출산-육아 워라밸' 보고서

"지원제도 다양한데 몰라서 못 쓴다"

육아휴직·출산휴가외 유급 근로혜택 제도 활용 미미
"출산휴가 가면 남은 직원들이 나눠 업무 해결" 많아

육아휴직·출산휴가 외 유급 수유시간 보장제도, 태아검진 시간 허용제도 등 법률에 근거한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기업이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역사회와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선민정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로 '주 52시간제', 임신·출산·육아 관련 육아휴직, 돌봄휴가, 그 외 유연근무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내 44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지원 기반 및 직장문화,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의 도입과 활용 실태, 운영 경험, 정책 수요 등을 설문조사한 뒤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기업의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인지도 문항에서 지원 제도들을 모르거나 들어본 적은 있는 경우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 정도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업에서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제도, 유급 수유시간 보장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30%대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르는 경우가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또 법률에 근거한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가 기업 내에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관련 지원제도 중에서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제도가 없는 경우가 약 70%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조절제도 중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없는 경우가 약 65% 정도로 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제도에 비해 높게 운영되고 있다.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인력 운영·관리' 부분이었다. 특히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사자가 맡았던 업무는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이에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역시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강화'가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및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안) 마련 ▷제주형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위한 사전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일·생활균형 관련 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우수사례 공유 ▷제주형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수난사고 특별구조훈련을 하고 있는 제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원들.

지난해 수난사고 77명 '구사일생'

서부소방 특별구조 훈련
"1년전보다 사고 72% 늘어"

지난해 제주 서부지역에서 수난사고가 72% 급증하며 77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부소방서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실내수영장에서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서부소방관내 수난사고 출동건수는 2020년 140건, 2021년 144건, 2022년 248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2021년보다 72%가 급증했다.

이로 인한 구조인원 역시 2021년 23명, 2022년 77명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119구조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동계 수난구조 활동 시 긴급상황 대처 ▷수상·수중 인명구조 ▷2인 1조 수중탐색 ▷수난사고 대응 절차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이 진행됐다.

김영호 서장은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생활 속 법률문제 '마을변호사'에 맡기세요"

12개읍·면에 34명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12개 읍·면에 총 34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는 제도다.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전화 또는 이메일, 현장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1218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조상범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마을변호사를 통해 편하게 상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물반 멸치반 31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포구에 멸치떼가 들어오자 마을 주민들이 도구를 이용해 멸치를 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추자도 찾아가는 치매 검진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이달 6~7일 추자도를 방문해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교육에 나선다.

31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찾아가는 활동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추자도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치매 관리가 어려웠던 지역에 속한다. 이곳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1574명 중에서 60세 이상 인구수가 792명으로 나타났다.

조기 검진 결과에 따라 정상군에게는 치매 예방 교육을 벌이고 고위험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치매 진단 시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쉼터 프로그램, 가족 교육, 간호용품 제공 등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선희기자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장학생 165명 모집

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재단이 2023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은 2023년도 제주삼다수장학생 165명(대학생 60명, 고교생 60명, 중학생 45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학생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연속) 주소지가 등록돼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의 자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학업성적과 생활정도를 고려해 선발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1년간 최대 550만원이 지원된다.

대학생 장학생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제주삼다수재단 누리집(samdasoo.incruit.com)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공지사항 또는 제주삼다수재단 누리집 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오는 4월에 각 학교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고등학생은 도내 30개교에서 학교당 2명(성적우수자 1명, 저소득층 1명)씩, 총 60명을 선발한다. 중학생은 중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1명(저소득층 1명)씩 총 45명을 선발한다.

한편 제주삼다수재단은 200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1637명의 장학생을 선발, 총 37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고대로기자